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송(松) 염계(濂溪)·이정(二程)·강절(康節)에 이르러서야 전하지 않던 오묘한 이치를 얻고 이미 끊어진 도통을 이었다. 정자는 "주역" 경문을 연역하여 의리의 깊은 뜻을 드러냈고, 소강절은 복희가 그린 그림을 전하면서 상수의 정밀함과 깊이를 완벽하게 보여 주었다. 회암(晦庵)주자(朱子)는 다시 그것을 집대성하면서 "본의(本義"를 지어 경문에 붙이고"계몽(啓蒙)"을 지어 나머지 의미를 모두 드러냈다. 그는 상수를 더욱 정밀하게 궁구하였고, 의리를 더욱 분명하게 분석하였다. 진한 이래 드리웠던그림자를 모두 청소하여 마치 밝은 태양이 푸른 하늘에서 운행하는 것과같았다. 이는 진실로 천만 세 우리 도의 큰 다행이었다.

바닷가 소견이 좁은 선비로 고루하고 과문(寡聞)하지만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이 명백한 해설을 통하여 떳떳함을 지닌 본성의 천도를 밝혔다. 비록 대도(大道)에 대해서는 그 경정(逕庭)도 알지 못하지만, 글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칠게나마 구두를 뗄 수는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 초려(草廬) 오징(吳澄)이 지은 "찬언(纂言)"을 보았다. 그 저작은 괘효의 호체(互體)에서 상(象)을 취함에 있어 발명(發明)한 것이 많아 이 경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이 기이한 것 내세우기를 힘쓰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내용을 포함한데다 선유의 설과 어긋나고 이단에 빠진 것도 간혹 있었다. 이에나 자신의 광참(狂僭)을 헤아리지 않고 내 견해를 하나 둘 기록하여 그 뒤에 실었다. 이는 오로지 나 자신이 잊어버릴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아아! 역을 어찌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공자와 같이 위대한 성인조차도 "내가 몇 년을 더 살게 되어 마침내 역을 배울 수 있다면 큰 허물은 없을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배우는 사람의 경우에야 어떠하겠는가?

상경(上經)

양수(陽數)는 구(九)를 '노(老)'라 하고, 음수(陰數)는 육(六)을 '노(老)'로 본다. 내가 생각건대 "하늘은 셋으로 하고 땅은 둘로 해서 숫자를 붙인다"라고 한 설은 정밀하고 깊어서 초학자들이 궁구하기는 쉽지 않다. 내가 감히 간단하고 쉽게 알수 있는 것으로 밝혀 보겠다. "태극(太極)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는다"라고 할 때의 태극은 이치(理致)이다. 이 이치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기(氣)가 있고, 기가 있으면 반드시 음양 홀짝의 구분이 있으므로 홀수 한 개를 그려 양을 상징하고 짝수 한 개를 그려 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양의이다. 또 음양이 각각 양과 음을 한 개씩 낳는 상이 있으므로 양의(兩儀)의 위에 달리 홀수 한 개를 만들고 다시 홀수 하나를 더하면 순수한 양으로서 노양(老陽)이 된다. 달리 홀수 한 개를 만들고 짝수 한나를 만들고 다시 홀수 하나를 더하면 음 가운데 양이 있는 소양(少陽)이다. 달리 짝수 하나를 만들고 다시 짝수 하나를 더하면 순수한 음으로 노음(老陰)이 된다. 이것이 사상(四象)이다.

그 때문에 그 숫자도 하늘수 1(天一)은 태극이 되고 당수 2(地二)의 짝수가 음의(陰義)가 되며 하늘수 3[天三]의 홀수가 양의(陽儀)가 된다. 하늘수3 위에 삼(三) 하나를 더하고 다시 삼 하나를 더하면 3×3은 9로서 홀수가 셋인 순수한 양인 노양의 숫자가 된다. 삼 위에 삼 하나를 더하고 다시 이 하나를 더하면 삼 두 개와 이 하나를 합하여 8이 된다. 이 경우 홀수가 둘이고 짝수가 하나이므로 음이 적고 양이 많은 소음의 숫자가 된다. 땅수 2 위에 이 하나를 더하고 다시 삼 하나를 더하면 이 두 개와 삼 한 개로서 7이 된다. 이 경우 짝수가 둘이고 홀수가 하나이므로 양은 적고 음이 많은 소양의 숫자가 된다. 이(二)위에 이 하나를 더하고 다시 이 하나를 더하면 3×2는 6이 된다. 이 경우 짝수 셋의 순음인 노음의 숫자가 된다. 이것이 음·양·노·소의 상이 9, 8, 7, 6이라는 숫자를 얻게 되는 과정이다. 늙은 것은 변하고 젊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점법의 경우는 변효(變爻)를 위주로 하므로 모든 괘의 음양에는 9와 6만을 사용하고 7과 8은 쓰지 않는다.

건(乾)

건(乾)은 크게 형통하고 바른 것이 이롭다[乾, 元亨,利貞].

문왕의 단사(彖辭)는 점법에 기초한 것이지만 공자는 네 가지 덕으로 풀이하였다. 생각건대 점법에 길흉이 있는 것 또한 이 이치가 본디 그러하기 때문일 뿐이므로 점을 쳐서 건을 얻은 경우 그 점이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이로운 것'도 이 괘에 이 네 가지 덕이 있기 때문이지, 달리 하나의 주장을 하여 문왕과 차이를 두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이 둘을 함께보더라도 서로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문왕·주공의 단사는 바로 괘효의 상에 따라 점법을 설명하고, 공자의 전은 다시 단사를 기초로 점서에 길하고 흉한 이치가 있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정자(程子)는 공자의 전에 기초하여 의리(義理)를 연역하였고, 주자(朱子)는 문왕·주공의 의도에 따라 점법을 밝힌 것이니 앞 뒤 성현이 서로 발명한 것이다.

건(乾)의 초구(初九)는 바로 복(復)의 초구(初九)이다. "잠긴 용이니 쓰지말라"고 한 것은 바로 복괘의 "상전(象傳)"에 "동짓날에 관문을 닫고 장사치나 여행자를 다니지 못하게 하며 제후도 방내를 순찰하지 않는다"라고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 괘의 여섯 획이 모두 양호이지만 초효를 중심으로 말하면 양이 밑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둘째 효 이상은 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괘 초구에는 회복하는 상이 있다. 이는 건도가곧아 원을 회복하는 때이므로 편안하고 고요하게 미세한 양을 길러야 한다.

論語解說(11)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4편 이인(里仁)

제3장

공자가 말하였다. 오직 인자한 사람만이 능히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능히 남을 미워할 수 있다.

[원문]

子曰 唯仁者라야 能好仁하며 能惡仁니라.[자왈 유인자라야 능호인하며 능악인니라.]

[이해]

오직 어진 인물만이 시비를 바르게 판단할 줄 알고 공평무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제4장

공자가 말하였다. "진실로 인자함에 뜻을 둔다면 악한 것이 없어진다."자

[원문]

曰 苟志於仁矣면 無惡也니라.

[왈 구지어인의면 무악야니라.]

[이해]

선악의 발현은 심성의 바탕을 둠으로 어진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악행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제5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부[富]와 귀[貴]는 사람마다 소망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빈과 천은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회피해 떠나가지 않는다. 군자가 인자함을 버린다면 무엇으로 명예를 이룰 수 있으리오.군자는 식사를 끝마치는 사이라도 인자함을 어기는 일이 없는 법이니 황급한 때에도 반드시 이것을 지키며 곤경에 처해도 반드시 이것을 유지한다."

[원문]

子曰 富與貴는 是人之所欲也나 不以其道得之거든 不處也며 貧與賤은 是人之所惡也나 不以其道得之라면 不去也니라. 君子去仁이면 惡乎成名이리오 君子는 無終食之間違仁이니 造次에 必於是하며 顚沛에 必於是니라.[자왈 부여귀는 시인지소욕야나 불이기도득지거든 불처야며 빈여천은 시인지소악야나 불이기도득지라면 불거야니라. 군자거인이면 악호성명이리오 군자는 무종식지간을 위인이니 조차에 필어시하며 전패에 필어시니라.]

[이해]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은 누구라도 바라는 것이지만 재능과 인격이 갖추어져 위정자한테 예를 받아들여져야지 비굴하게 굴어서 부귀를 차지하려 들지 말 것이며 빈천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재능과 인격의 미흡 때문에 그리된 것이 아닐 경우는 구태여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다.

제6장

공자가 말하였다. "나는 아직까지 제대로 인자함을 좋아하는 사람과 인자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인자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으나 인자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인자함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인자하지 않은 것이 자기 몸에 붙어있지 못하게 만든다. 하루를 능히 인자함을 위해 힘쓸 사람이 있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하는 데에 힘이 모자라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을 법하나 나는 아직까지 본 일이 없다."

[원문]

子曰 我未見好仁者와 惡不仁者라 好仁者는 無以尙之요 惡不仁者는 其爲仁矣에 不使不仁者로 加乎其身이니라 有能一日에 用其力於仁矣乎아 我未見力不足者라 蓋有之矣러늘 我未之見也로다.[자왈 아미견호인자와 악불인자라 호인자는 무이상지요 악불인자는 기위인의에 불사불인자로 가호기신이니라 유능일일에 용기력어인의호아 아미견력불족자라개유지의러늘 아미지견야로다.]

[이해]

올바른 진리와 도의 합당한 자세를 추구하여 덕성을 연마해야 할 선비가 이미 부귀나 영화에 정신이 해이해졌다면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품격은 거의 찾을 수 없어진 때문이다.

제10장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에게는 이 세상에 적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며 정의에 견주어 살아나간다."

[원문]

子曰 君子之於天下也에 武適也하며 無莫也하여 義之與比니라.[자왈 군자지어천하야에 무적야하며 무막야하여의지여비니라.]

[이해]

군자는 시비나 이해에 얽힌 통상적인 관념을 초월하고 명분이 없는 행실을 삼갈 뿐 아니라 오직 정의로움에 가부의 기준을 두고 이에 따라 음직일 따름이라는 말이다.

제11장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는데 소인은 토지를 생각하고 군자는 형벌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특례를 생각한다."

[원문]

子曰 君子는 懷德하고 小人은 懷土하며 君子懷刑하고 小人懷惠니라.[자왈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토하며 군자회형하고 소인회혜니라.]

[이해]

여기서의 덕은 인의예지신 같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큰 진리. 토지는 자기한계 내의 그치는 대체를 돌아보지 않는 부분적이고 얄팍한 이익. 형벌은 법률. 특혜는 과실을 범하고도 예의적으로 용서 받게 되는 것 등속을 가리킨다.

제12장

공자가 말하였다. "이익에 따라서 함부로 행동을 하면 원한이 많아지게 된다."

[원문]

子曰 放於而而行이면 多怨이니라.[자왈 방어이이행이면 다원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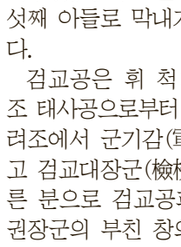
[이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느라 남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부득이한 원수를 맺을 경우도 피치 못하게 되리라는 경계이다.

특별기고 〈49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1〉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2013년에 항일독립운동가로서 무장항쟁으로 선봉에 선 권준 장군을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하였다. 권장군은 경북 상주군 함창면 척동리(尺洞里) 168번지에서 고종 32년(1895년) 5월 2일에 태어났다. 자(字) 계언(季彦)이고 호(號)는 백인(百忍)이며, 치열한 독립운동 과정에서 권중환(權重煥;족보명), 권중석(權重錫), 강병수(姜炳秀), 진민각(陳民覺), 장종화(張從化), 양무(揚武), 장수화(張樹華) 등의 여러 이름을 사용하였다.

권장군은 안동권씨 32세손으로 검교공파(檢校公派)의 후손으로서 검교공의 15대 종손 후련정(後蓮亭) 휘 수경(守經)의 7대손이다. 그 4자(子) 단성현감 휘 경(鏡)의 5대종손인 부친 창의공(倡義公) 휘 석주(錫周)와 모친 함녕 김씨의 다섯째 아들로 막내가 곧 권장군이다.

검교공은 휘 척(倜)으로서 시조 태사공으로부터 10세손으로 고려조에서 군기감(軍器監)을 지내고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에 이른 분으로 검교공파의 파조이다. 권장군의 부친 창의공은 헌종 10년(1844년)에 출생하여, 1895년 고종 왕비 민씨(1897년 대한제국에서 '명성황후'로 추존)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을 당하여 그 원수를 갚고자 의병을 창의하고 대중을 경동하여 모아 왜적을 토벌하였으나 조정의 명령으로 의병을 해체당하자, 향리로 돌아와 두문불출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은 지 3년만인 1899년 4월 1일에 졸하였다. 향년 56세였다. 이 때 권장군의 나이 5세였다. 예로부터 '왕대 밑에 왕대난다'고 했던가. 군기감이나 대장군의 후손으로서 또한 일찍이 부친의 왜적을 토벌한 의병장의 의기충천함을 권장군이 물려 받았다고 본다.

2014년 현재 우리 민족과 국가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지 어언 66년, 약 1백여 년 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정세'에 세계열강이 주목했던 당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갑오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1894년)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다음해에 일본 낭인과 군인들이 민비(명성황후)를 시해(弑害, 1895. 8. 20)하고 조선의 친일내각 구성에 의한 이른바 '을미개혁(1895. 8. 24)'을 단행하였다. 일본이 제 1, 2 차 英日 同盟과 카스라(桂)·태프트(Taft)의 美日 密約 및 露日 전쟁 후에 제 1, 2차 한일협약 등으로 이른바 '을사보호조약(1905년. 11. 17)'에서 '경술국치(한일합방, 1910. 8. 29)'로 한국(당시 대한제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섰었다. 꼭 10년 전인 러일전쟁 개시 100돌이었던 2004년에, 100년 전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 대량 살육 관련기사가 한국과 주변국의 신문지상을 장식했다. 한국의 보수 신문들은 '그때'와 '오늘'의 정세 불안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국가 부강의 필요성과, 한국을 보호할 수호천사로서 미국의 역할을 역설했다. 하지만 100년 전 미국과 영국 등이 일본의 한반도 강탈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36년 간(실제로 갑오동학농민혁명 이후 그 다음해인 1895년 을미개혁이라는 '친일내각'에서부터 1945년까지 50년 간)의 일제강점을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요설로 국가민족의 체적 비젼이 실종된 가운데, 경제적 공황이란 위기가 닥쳐올 지도 모른다는 불안의 그림자가 온 나라에 드리워져 있다. 안 밖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으로 전쟁의 불안이 감돈다. 지난 1세기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의 입김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국제관계에서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상고할 때 '영원한 우방(友邦)도 영원한 적국(敵國)도 없다.'(파마넌트 영국 전 수상)는 것은, 해방 당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얘기로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자, 일본놈 일어선다."는 것을 현재 아베 일본 수상을 비롯한 과거반성이 없는 일본의 망언과 정세가 이를 상기하게 한다.

이러한 긴박하고 엄중한 시기에, 비재독필(菲才禿筆)인 저가 우리 안동 권씨 종보에 수년간 충장공 권율(權慄) 도원수와 충정공 권벌(權橃) 선생 그리고 충의공 권응수(權應銖) 장군을 연재해 왔다. 이에 힘입어 안동권씨대종원 사무국 총장과 직원 및 권준 장군의 손자인 권영빈(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함께 집필해 나가면서 보충 참고할 것이다. 이번 3월호부터 일제에 의한 망국의 시기에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광복회, 의열단, 동방압박민족연합회 대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 민족혁명당 간부, 광복군 제5지대장 등 항일무장투쟁의 선봉에 섰고 대한민국 중경임시정부 내무부차장(차관)을 역임하여 후일 건국훈장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광복 후에도 국군에 입대하여 초대 수도경비사령관, 육군 50사단장, 육군 제3관구 초대사령관 등 군 요직을 역임하고 육군소장으로 예편하였다. 그동안 충무·금성화랑·무성을지무공훈장 등을 받았던 애국지사 백인 권준 장군을 연재하게 됨을 알려드린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 以愛妻子之心(이애처자지심)으로 事親則曲盡其孝(사친즉곡진기효)요 以保富貴之心(이보부귀지심)으로 奉君則無往不忠(봉군즉무왕불충)이오 以責人之心(이책인지심)으로 責己則寡過(책기즉과과)요 以恕己之心(이서기지심)으로 恕人則全交(서인즉전교)니라.

해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어버이를 섬긴다면, 그 효도를 극진히 할 수 있을 것이요, 부귀를 보전하는 마음으로써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느 때나 충성이 아니 됨이 없을 것이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한다면 사귐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니라."고 하였다.

○ 爾謀不臧(이모부장)이면 悔之何及(회지하급)이며 爾見不長(이견부장) 이면 教之何益(교지하익)이리오 利心專則背道(이심전즉배도)요 私意確 則滅公(사의확즉멸공)이니라.

해설: 꾀가 옳지 못하면 후회한들 어찌 미칠 것이며, 너의 소견이 훌륭하지 못하면 가르친들 무엇이 이로울 바 있으리오,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도(道)에 어긋나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공이 없어지게(滅) 되느니라.

○ 生事事生(생사사생)이오 省事事省(성사사성)이니라.

해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너무 살피고 덜면 일이 없어지니라.

참고: 愛..사랑 애, 親..친할 친, 어버이 친, 사랑할 친, 盡..다할 진, 다 진, 奉..받들 봉, 責..책할 책, 꾸짖을 책, 맡을 책, 寡..적을 과, 홀어미 과, 全..온전 전, 갖출 전, 交..사귈 교, 벗 교, 爾..너 이, 謀..꾀 모, 의논 할 모, 臧..어질 장, 착할 장,[藏..감출 장, 숨길 장] 教..가르칠 교, 專..오로지 전, 背..등 배, 悔..뉘우칠 회, 고칠 회, 益..더할 익, 넝넉할 익, 意..뜻 의, // 確..확실할 확, 굳을 확, 滅..멸할 멸, 끊을 멸, 恕..용서 할서, 어질 서, 省..덜 생, (省)..살필 성,-→(덜하다, 아끼다, 줄이다, 할 때는 "생"으로 발음하고, 예-생략(省略), 생비(省費), 살피다, 보다, 할 때는 "성" (성묘-省墓, 성찰-省察)으로 발음 한다는 것에 유의.)

Ⅷ 戒性篇(계성편)

○ 景行錄에云(경행록에 운), 人性(인성)이 如水(여수)하야 水一傾則不可復(수일경즉불가복)이오 性一縱則不可反(성일종즉불가반)이니 制水者 (제수자)는 必以堤防(필이제방)하고 制性者(제성자)는 必以禮法(필이예법)이니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물이 한 번 기울어지면 가히 돌이켜 질 수 없고 성품이 한 번 놓여 지면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니 물을 잡으려면 반드시 뚝을 쌓음으로써 되고 성품을 옳게 하려면 반드시 예법을 지킴으로써 되느니라."고 하였다.

○ 忍一時之忿(인일시지분)이면 免百日之憂(면백일지우)이니라.

해설: "한 때의 분한 것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느니라."

○ 得忍且忍(득인차인)이오 得戒且戒(득계차계)하라 不忍不戒(불인불계)면 小事成大(소사성대)니라.

해설: "참고 또 참으며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크게 되느니라."

○ 愚濁生嗔怒(우탁생진노)는 皆因理不通(개인리불통)이라 休添心上火(휴첨심상화)하고 只作耳邊風(지작이변풍)하라. 長短(장단)은 家家有(가가유)요 炎涼(염량)은 處處同(처처동)이라 是非無相實(시비무상실)하여 究竟摠成空(구경총성공)이니라.

해설: "어리석고 똑똑 하지 못한 자가 성을 내는 것은 다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화를 더하지 말고 다만 귓전을 스치는 바람결로 여겨라.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이 같으니라. 옳고 그름만이란 본래 실상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가 빈 것이 되느니라."

참고: 傾..기울어질 경, 性..성품 성, 復..회복할 복, 다시 복, 縱..놓을 종, 늘어진 종, 制..억제할 제, 堤..뚝 제, 막을 제, 禮..예도 예, 防..막을 방, 忍..참을 인, 忿..분할 분, 免..면할 면, 濁..흐릴 탁, 嗔..꾸짖을 진, 通..통할 통, 添..더할 첨, 變..갓 변, 炎..더울 염, 불꽃 성할 염, 凉..서늘할 량(양), 處..곳 처, 살 처, 怒..성낼 노, 화낼 노 短..짧을 단, 且..또 차, 이 차, 是..이 시, 옳을 시, 究..궁구할 구, 다할 구, 竟..마칠 경, 궁진할 경, 摠..다 총, 거느릴 총, 實..열매 실, 성실할 실.